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BP's Mad Dog 2 unit ready to head for US Gulf — Looney

삼성중공업이 건조하는 BP사의 Mad Dog 2 FPU 공사가 곧 완료되어 미국 멕시코만(Gulf of Mexico) 지역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70만톤 규모의 FPU이며, 하루 약 14만배럴가량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해당 유닛은 당초 2020년 sailaway 예정이었으나 2021년 1분기로 순연된 바 있음. (Upstream)

Asian shipyard takes lead in Petrobras mega tender for pair of Buzios floaters

브라질 국영업체 Petrobras가 Buzios 염전에 투입될 FPSO 2척에 대한 3건의 입찰을 받았다고 보도됨. 싱가포르의 Keppel은 P-78 FPSO에 대하여 가장 낮은 금액인 23억달러를 제시했으며, 대우조선해양은 26억달러, 삼성중공업은 28억달러를 입찰했다고 보도됨. 참고로 Keppel사는 현대중공업과 브라질의 BrasFel과 함께 입찰에 참여했다고 알려짐. (Upstream)

Frontrunner emerges for giant Qatargas North Field Expansion liquefaction trains package

일본의 Chiyoda Corporation과 영국의 TechnipFMC가 Qatargas가 발주하는 North Field Expansion 1st phase 프로젝트의 육상 패키지 공사에 대하여 유리한 고지(pole position)를 떠났다고 보도됨. Chiyoda-TechnipFMC 컨소시엄은 조만간 실제 수주 계약을 따낼 전망이라고 보도됨. (Upstream)

\$51bn in wind farm capital spending outstrips oil and gas for first time

Clarksons에 따르면, 풍력발전에 대한 투자비용이 Oil과 Gas 부문을 사상 처음으로 앞질렀고, 'Wind farm vessels'에 대한 높은 성장성을 언급했다고 보도됨. 2020년 18개의 해상풍력단지가 건설됐고 5.6GW에 달한다고 보도됨. 투자비용 기준으로 510억달러를 기록하며 Oil과 Gas의 410억달러를 넘어섰다고 보도됨. (TradeWinds)

Braemar ACM expects suezmax rally to last despite wider market woes

사우디아라비아가 2,3월 산유량을 1백만bpd 줄이기로 한 데 따라 탱커 시장의 스팟 운임이 겨우 운항비를 만회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도됨. 그러나 수에즈맥스 탱커 평균 운임은 VLCC를 앞지른 일일 1만달러 수준으로, 향후 OPEC+ 등 산유국들의 공급 물량 확대 전까지 수에즈맥스 운임은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보도됨. 케미컬탱커의 경우 중동산 제품에 대한 중국 및 인도 수요 증가로 점차 운임 증가세를 확인 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Evergas to exit pressurised LPG as LNG plans await green light

Evergas가 LNG병커링선을 포함하여 5,000~100,000CBM급 LNG선을 발주 및 보유하겠다고 발표함. Evergas는 소형 LNG선 사업을 시작으로 LNG선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기존의 가압식 LPG운반선 사업은 중단한다고 밝힘. (TradeWinds)